

『김립시집』 편찬의 意義

柳年錫(제1저자)* 梁東植(제2저자)**

<차 례>

- I. 머리말
- II. 『김립시집』에 대한 평가
- III. 편찬자 이응수의 활동 내력
- IV. 일제강점기 및 이후의 영향
- V. 맺는말
- ※참고문헌

I. 머리말

이 논문은 金炳淵¹⁾이 지은 漢詩의 가치 및 口傳되던 작품들을 수집하여 『金笠詩集』을 편찬한 李應洙의 공로를 아울러 평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김병연 생존 당시 그의 聲價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문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기만 하면 문득 음식을 대접하고 머물러 묵게 하였다. 그들은 김삿갓에게 어려운 운과 생경한 글제를 주어 그를 시험하기도 했다. 아무리 어려운 운자를 써도 그 운이 모두 타당하고 문

* 순천대학교

** 순천대학교

1) 김병연 : 조선시대의 방랑시인(1807~63), 자는 性心, 호는 蘭膏, 속칭은 김삿갓. 金笠은 김삿갓의 한자 표기다.

장이 원활했다. 뿐만 아니라 운을 부르는 즉시 응대하니 거의 생각이 막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명성이 대단했는데, 다만 그는 성만 말할뿐이고 샷갓 쓰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모두 그를 김샷갓(김대립)이라고 부른다.²⁾

『金笠詩集』에 수록된 漢詩의 원작자는 김병연이다. 조부 金益淳³⁾의 죄 때문에 폐족이 된 김병연은 우리나라 각지를 35년간 방랑하며 詩를 쓰다가 객사했다. 그의 사후 70여년이 지난 1939년에 이응수가 유고를 수집하여 한글로 해석을 붙인 『金笠詩集』 초판을 냈다. 이응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밝힐 것이다. 김병연의 작품은 대체로 五言絶句와 七言律詩로 되어 있으며 漢字로 표기하였다.

이응수의 『김립시집』이 출판되기 이전의 문헌에 김병연의 한시가 소개된 것은 『海東詩選』의 〈入金剛〉과 1918년에 장지연이 펴낸 『大同詩選』 9권의 〈矗石樓〉와 〈詠笠〉이다. 그 외에는 1930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이응수를 비롯한 崔某, 김태준, 박병준, 誠一氏, 이명선 등이 있었으며 이들이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四海公論 등에 김병연의 면모나 抄譯을 10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응수가 『김립시집』 초판을 낸 것이 1939년 2월 20일인데, 같은 해 5월 6일 재판권을 내었다. 모두 15×10cm의 문고판으로 이후 증보판(1941)이 나온 뒤에도 출판되었다. 이러한 증후로 보아 발행 부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1939년과 1946년 사이에 재판이 더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정황은 이 책의 독자가 많았다는 증거도 된다.

그리고 1941년 이응수의 『김립시집』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증보판의 서문에는 “전번 학예사 판의 줄저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많은 글월이 왔던”⁴⁾ 사실을 명기했다. 이것은 초판의 독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심증을

2) 申錫愚, 『海藏集』, 권 13.

人不廉其來 來輒以盤飧供 止其宿 以強韻硬題難之 步押平安 篇章圓滑 隨乎隨應 略不經意 以是聲名太噪 只言其姓 又以其喜戴笠故 呼爲金笠笠

3) 김익순 : 김병연의 조부. 당시 宣川防禦使였던 그는 흥경래난(1811)때 반군에게 항복했으며 이듬해 사형을 당했다.

뒷받침하는 이응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증보판 『김립시집』은 이후 1944년에도 다시 발행되었는데 왜 ‘再版’으로 표기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이 판본부터 공급처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시기는 일본에 의한 創氏改名이 시작된 지 이미 4년 째이며 저작자는 이응수로 되어 있으나 발행자와 인쇄인은 모두 개명을 했다.

상기와 같은 정황을 볼 때 당시에 출판된 김병연의 한시 모음집인 『김립시집』의 편찬은 문학계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깊이 있는 거론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김병연의 한시들이 우리 문학에 끼친 영향과 아울러 전국에 흩어진 유작을 수집 정리하여 최초로 시집을 출판한 이응수의 『김립시집』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II. 『김립시집』에 대한 평가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에 수록된 340여 편의 한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박혜숙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김삿갓 시가 계속 민간에서 전승될 수 있는 이유의 일부는 19세기 중반의 광범한 공감층의 존재에 있을 것이다”⁵⁾고 하였다. 김병연의 생존 당대에는 물론 일제 강점기 에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두 시대의 유사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의 유사성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의 대조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박혜숙은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1973)에 이르러 김삿갓의 ‘파격적인 한시’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가 주목되었으며, 김삿갓의 시세계는 한 개인의 생애와 기질의 차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집단적인 의식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하에 설명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것임이 시사되었다”⁶⁾고 했다.

4)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한성도서주식회사, 1941, 13쪽.

5) 박혜숙, 『金삿갓詩研究 - 『金笠詩集』(1941)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07쪽.

위의 박혜숙이 말하는 당대는 김병연 생존 시기로서 그의 작품들이 口傳 또는 개인의 필사본으로 전파되던 시절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이응수가 『김립시집』을 출판한 시기라는 차이 뿐이다. 그러나 거의 연속되는 두 시기에 김병연의 한시가 애송된 이유, 즉 집단적인 의식의 동향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정응수는 김병연의 작품에 대해서 “또한 ‘한글·한자 섞어 지은 시’는 한 시시대에서 한글시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문학이 한시시대와 다음 한글문화시대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⁷⁾고 했다. 김병연의 ‘한글·한자 섞어 지은 시’가 한시시대와 한글문화시대의 교량적인 역할을 했다는 견해는 그 발견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전되던 김병연의 시들을 수집하여 인쇄매체로 퍼내었던 이응수의 성과도 더불어 주목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자면 한시와 한글시의 시대적 교량 역할을 하도록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다리를 놓아준 이응수의 집념과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등지고 가정조차 버린 채 방랑의 길을 택했던 김병연의 생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史家들의 연구에 의하면 “김립의 생존시기였던 순조이래 반세기에 걸쳤던 세도정치는 一族의 전제적인 정치체재로서 그 자체가 이미 公道를 상실하였다.”⁸⁾ 그리하여 “봉건기강의 이완과 더불어 왕실과 양반 관료들의 부패와 낭비가 극심해 갔고, 地代收取機能을 담당한 군현에 있어서는 수령, 서리, 양반 등 세가들에 의한 농민침학과 가렴주구가 세증월가하여 이른바 三政의 문란이 그 극에 도달한 19세기 중엽(철종기)에는 봉건적 수취 관계가 총파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⁹⁾고 기록하고 있다.

6) 상계논문, 3쪽.

7)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주로 파격시를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52쪽.

8) 한영국, 『한국사대계』 6권 - 조선후기, 삼진사, 1973, 118쪽.

일제강점기는 어떠하였던가? 갑오경장으로 조선의 정치제도는 개혁을 당했으며, 1910년 일제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조선왕조)은 멸망되었다. 민비가 시해를 당하고, 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은 우리 나라의 고유성을 말살하기 시작하였으며, 피눈물나는 경제적 수탈이 자행되었다. 광산물 산지와 어장의 약탈, 토지소유권의 박탈로 한국 농민은 초근목피로 연명하거나 농토를 빼앗긴 농민은 간도로, 연해주로 떠났다. 애국지사는 사찰·체포·혹형을 당했으며, 창씨개명·강제징용·여자정신대 등으로 가정과 개인은 파괴되었다. 드디어 온 국민은 배급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고, 늦그릇까지 징발하여 전쟁물자로 사용했던 일본제국시대의 참상은 조선 왕조시대의 가림주구보다 더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삼정이 문란하였던 시기에 김병연의 ‘한시와 파격시, 한글·한자 섞어 지은 시’가 일세를 풍미한 것과 일제 강점기에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낸 것은 김병연의 詩作과 이응수의 『김립시집』 편찬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맞물려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김병연의 다양한 작품에 대하여 이진호는 “金炳淵의 시는 한시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시문은 엄격한 형식과 정제된 내용으로 일부 상부계층의 독점문학이었다. 이러한 한시문의 특성 때문에 일반 서민층과 무관했던 한시문을 金炳淵은 쉬운 말과 흥미로운 익살로 대중을 한시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래서 金炳淵의 시는 시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金炳淵의 시는 날이 갈수록 대중과 가까워지고 대중 속으로 파급되어 간 점으로 보아서 그의 시는 진정한 한국인의 대중시인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김병연의 생애와 그 문학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연구를 한 정대구는 김병연 한시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동시대에 있어서의 위상’과 ‘개화기 시가와와의 연계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먼저 동시대에 있어서의 위

9) 한우근,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 을유문화사, 1961, 39쪽.

10) 이진호, 「김병연시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1쪽.

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삿갓(1807~1863)과 같은 시대 사람인 신석우(1805~1849)의 『해장집』이나 황오(1816~?)의 『녹차집』에 기록된 김삿갓의 성가(聲價)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시가 지니는 민중성·해학성·파격성이 그의 기행(奇行)에 편승하여 더욱 인기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김삿갓의 민중성이라든지 파격성은 분명 김삿갓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것은 붕괴와 변혁의 물결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봉건말기의 시대적·역사적 요청에 김삿갓의 재능이 호응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이다.

우리 문학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우리 문학은 국문으로 써야 한다는 탁월한 문학관을 내세운 김만중(1637~1692)에게서 벌써 있었고 보다 먼저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파격과 풍자의 시인 임제(1549~1587)가 있었다. 그러나 문학사의 흐름을 지속과 변혁의 끝없는 도전으로 생각할 때 엄격하고 귀족적인 한시문학에 붕괴와 변혁의 조짐을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를 전후한 조선조 후기부터다.¹¹⁾

이와 같이 김병연 한시의 민중성은 ‘봉건말기의 시대적·역사적 요청에 김삿갓의 재능이 호응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제 개화기 시가와와의 연계적 고찰을 보겠다.

김삿갓 죽은(1863)지 반 세기도 안 되는 30년 만에 갑오경장(1894)이 이루어졌다. 주지하는 대로 갑오경장은 구각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개혁이요 그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몸부림의 요인이 안과 밖으로 벌써 그 이전부터 마련되고 있었음도 다 아는 바와 같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그러한 추세는 오히려 정치에 앞서 진행되고 있었다. 사설시조와 판소리의 대두, 조선시·위항시·악부체 한시의 출현, 한시의 민요화, 김삿갓으로 집약되는 한시의 다양한 파격작업이 그것이다. 이렇게 만만찮은 세력을 가지고 준동하고 있던 국문학의 기류가 정치적·사회적 제반 문화현상에서 신·

11)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195쪽.

구가 교체하는 개화기를 맞이하여 일대 진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장르상의 교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화기는 그때까지 한국문단을 주도해 오던 한문표기의 문학이 국문표기 문학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전환점이었다.¹²⁾

이상과 같이 김병연의 한시를 비롯한 ‘한자·한글 섞어 지은시’ 등을 연구한 석학들의 견해는 그의 작품들이 당시는 물론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도 독자들의 호응과 공감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조동일은 박오양 편『김립시집』을 이용하고 위에 거론된 박혜숙, 정대구 등의 논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육담풍월이나 언문풍월은 제대로 된 작품은 아니지만 문학사의 전환을 위해 커다란 구실을 했다. 민요시나 악부시가 한시의 내용만 달라지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형식마저 파괴하는 과업을 맡았다. 한문 존중의 관습마저 조롱하고 파괴하는 대상으로 삼아 어문생활사에서 근대가 시작되게 하는 대변력을 촉진했다.¹³⁾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병연의 소작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작품은 아니지만 문학사의 전환을 위해 커다란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흔히 김삿갓을 육담풍월이나 음담패설만 지어낸 奇人 따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음담패설은 쉽게 기억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상적인 평가를 했던 것이다. 다음의 詩〈艱貧〉은 그러한 편견을 충분히 불식할 것이다.

地上有仙仙見富	지상에 신선이 있으되 신선은 부자만 보겠고
人間無罪罪有貧	인간에 죄가 없으되 죄는 가난함에 있다
莫道貧富別有種	빈부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니
貧者還富富還貧	가난한 자 부해지고 부한 자 가난해진다

12) 상계서, 201쪽.

1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6, 283쪽.

이건호는 “세상사 이치가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노래한 듯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당시의 사회에 대한 풍자가 내포되어 있다.”¹⁴⁾라고 읽어 준다. 이것은 김삿갓이 단순히 부자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세태를 개탄하고 비판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정작 정통 한시나 육담풍월, 언문풍월이 ‘어문생활사에서 근대가 시작되게 하는 대변혁을 촉진’했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문학사의 전환이나 어문생활사에서 근대가 시작되게 하는 대변혁의 촉매제로 역할을 한 이응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에 『김립시집』의 편저자 이응수의 활동 내력을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Ⅲ. 편찬자 이응수의 활동 내력

이응수는 구전되던 김병연의 한시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의 전국을 답사했다. 후에 편찬한 『김립시집』 서문에서 “저자가 서당 훈장, 한학자 등을 함경도, 경기도로 널리 찾아 다녔으나 아무리 村에 들어가고 아무리 시골에 들어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¹⁵⁾고 했다. 수집된 김병연의 한시들을 정리하여 『김립시집』을 편찬하던 무렵 이응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주소는 “京城府外 弘濟外里 32-2”¹⁶⁾로 나와 있다. 그러나 1932년에 문예월간에서 펴낸 『문예가명록』이나 1939년 인문사의 『조선문예연감』 따위는 물론 우리 측에서 펴낸 어떤 문헌에서도 이응수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이건호, 전계논문, 149~150쪽.

15) 이응수, 전개서, 11쪽

16) 상개서, 13쪽.

다만 이응수가 1956년에 『풍자시인 김삿갓』(평양 국립출판사)을 펴내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김삿갓 풍자시 전집』으로 책명만 바꾸어 그대로 담아낸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이응수는 1906년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태어나 경성제대를 졸업하였다. 8.15 해방이후 북한에서 문학사를 집필하였고, 김삿갓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 활동을 하다가 1964년 작고하였다.”¹⁷⁾고 하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석의가 펴낸 일어판 『金笠詩選』에는 이응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어판 원문¹⁸⁾을 간추리면, 김립의 연구에 공적이 많은 이응수(1909~1964)는 194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大空應洙로 창씨개명 했으며, 잠시 모처의 학교와 조선총독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해방후 북한으로 갔으며 『조선노예시대사연구』(1947)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응수가 북쪽으로 간 뒤에는 1948년 박오양을 필두로 무려 16명의 편저자가 각각 30종 이상의 『김립시집』과 시화집을 펴내었다.¹⁹⁾ 그러나 마치 자신들의 저작물인 양 이응수라는 이름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러나 전술한 『김립시선』의 역편자 최석의는 북쪽에서의 이응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혼동을 우려하여 日文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芸學者，咸鏡南道高郡原の労働者の家庭に生まれた。高等普通學校在學中に全國各地を踏査しながら金笠の詩の収集を始めた。その後大學を卒業して教員生活をした。一九三九年に『金笠詩集』を編纂出版，さらに二年後資料を補充して『金笠詩集』を再版した。解放後，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の配慮によって金日成綜合大學教授と科學院言語文學研究所教授を歴任。その間，朝鮮歴史部門に關聯した多數の論文を執筆し，とくに文學史研究に深い關心を寄せた。彼は

17) 이응수, 『김삿갓 풍자시전집』, 실천문학사, 2000, 5쪽.

18) 최석의, 『金笠詩選』, 평범사, 2003, 347쪽.

19) 정대구, 전계서, 80쪽.

諷刺詩人金サシカ と民族詩歌の遺産の中から選擇した 『高麗歌謠』(五四年)
と 『靑丘永言選』(五五年) を編纂した。²⁰⁾

위 인용문의 출처인 『조선대백과사전』이 언제 발행된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1996년 판의 『조선대백과사전』을 뒤져 보았으나 그곳에는 이응수도 리응수도 나와 있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정황으로 보아 모종의 ‘비판’을 받아 최근에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다.

남측에서는 이응수가 해방후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월북작가에 대한 조처 때문인지 그에 관한 자료는 물론 연구도 전무하다. 또한 북측에서의 면모도 일본의 저작물을 통해서나 약간의 편린을 얻을 뿐이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응수에 대한 평가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IV. 일제강점기 및 이후의 영향

조동일은 1919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근대문학으로 나누고, 1919년부터 1944년을 제1기로 구분하였다. 이때는 마침 이응수가 『김립시집』 초판(1939)과 증보판(1941)을 출판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민족의 시련과 수난 속의 이 시기의 성격을 조동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학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권을 일부 상실한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도 의병을 일으켜 무력항쟁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항일을 용납하지 않는 법규 때문에 일본 대신 천일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1910년 이후에는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는 것이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검열에 걸린 글을 삭제, 압수하고 간행물을 정·폐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자를 투옥하기도 했다. (중략)

20) 최석의, 전계서, 347~348쪽.

김열의 대상이 아닌 민요나 설화는 지하문학일 수 있는 조건을 원래부터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항일문학을 은밀하게 만들어 퍼뜨리는 데 이용되었으나, 그렇게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필사본은 출판물이 아니므로 김열의 대상이 아니었다. 필사본으로 기록해 작자가 보관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사람들끼리만 은밀하게 돌려본 작품에는 적극적인 항일을 한 것들이 있다. 의병 투쟁을 서술하고 회고한 한시문이나 가사가 그 좋은 예이다.²¹⁾

이러한 시기에 『김립시집』이 2회나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널리 읽힌 것은 김병연의 한시들이 식민지 통치를 비판한 내용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김병연이 조소와 풍자의 표적을 삼았던 양반지배층으로부터 일본인과 친일파 쪽으로 화살의 방향을 바꾸었다. 우리 민족은 폭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일본인들을 김병연의 작품들은 통해 저주하면서 동태한 카타르시스를 만끽했던 것이다. 예문을 들어 보겠다.

唐鞋宋襪數斤綿	당나라 가죽신, 송나라 버선을 두어 개 꺼 신고
踏盡清霜赴暮煙	아침에 꿈을 안고 집을 나서면 저녁 연기 날 때 돌아온다
淺綠周衣長曳地	푸른 두루마기는 길어서 땅에 끌고
眞紅唐扇半遮天	붉은 부채는 반쯤만 해도 하늘을 가리겠구나
詩讀一卷能言律	책은 한 권을 읽고도 시를 말하고
財盡千金尙用錢	돈은 천금을 쓰면서 오히려 부족해 한다
朱門盡日垂頭客	권세 있는 문 앞에 가 온종일 머리를 수그리고 섰던 자가
若到鄉人意氣全	문득 고향 사람을 만나더니 그 의기 하늘을 찌를 듯 하다

〈盡日垂頭客〉(전문)

1행에서 4행까지는 치장과 걸모습이 그럴듯한 양반의 외양모사를 하고 5행부터 8행까지는 양반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그려 양반의 이중성을 노골적으로 풍자하였다. 대단치도 않은 신분을 내세워 잘난 체 하면서도 권세가 앞에서는 종일토록 머리를 숙이고 아첨하는 양반의 허상을 노골적으로 아우함으로써 온

21) 조동일, 전계서 권5, 29~30쪽.

갖 치장과 권위만 갖고 기세부리는 양반의 허위를 풍자하고 있다.²²⁾

물론 이응수는 김병연의 詩를 앞세워 일제와 친일파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내비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당시의 사정으로는 그런 의도를 내비칠 수도 없었다. 이응수는 은연중에 “日本の 歌人 西行이나 俳人 芭蕉一茶 같은 사람도 行脚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斷然 金笠에게는 못따르리라.”²³⁾고 하며 우리 나라의 김병연을 치켜세웠다. 뿐만 아니라 1930년 中外日報에 〈世界詩壇 三大革命家 惠트먼, 石川啄木, 金笠〉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도 조선의 시인 김병연이 미국의 시인 휘트먼이나 일본의 석천탁 목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내세워 독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그의 의도를 짐작할 뿐이다.

이와 같이 『김립시집』은 검열이나 삭제, 또는 폐간이라는 제지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이응수의 교묘한 계산에 따른 우리 문학사의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다시 ‘김삿갓 북한 방랑기’로 각색되어 對北韓 정책에 활용되었다.

역사상의 실제 인물이었던 김삿갓(金笠)으로 하여금 敵治下 북녘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北傀의 비정과 탄압 그리고 住民들의 고통상을 꼬집고 告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거짓과 모략선전에 광분하는 北傀 統治相을 폭로하는 社會諷刺劇(중략). 1972년 11월 4일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고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합의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자 KBS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김삿갓 放浪記〉로 바꾸고 김삿갓이 南韓을 巡禮하는 것으로 고쳤다. 그리하여 주로 조국의 近代化와 건설의 모습을 홍보했던 것이다.²⁴⁾

이 풍자극의 첫 집필자는 김광섭이었으며, 나중에 김지수 등 많은 분들

22) 이진호, 전계논문, 149쪽.

23) 이응수, 전계서(중보판), 21쪽.

24) KBS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514쪽.

이 바뀌어가며 집필했다. 첫 방송은 1964년 5월 18일 낮 12시 55분이었다. 극중의 인물은 김삿갓과 노동자, 농민, 공산당원, 지도원, 작업반장, 안전군관, 당비서 등이 등장한다. 가상의 북한 방랑자 김삿갓은 곰탕집에 들렀다가 북한에서 차별없이 평등한 것은 ‘곰탕집의 소금’ 뿐이라고 조크를 던진다. 그리고 혀를차며 4행시를 읊었다. 그 가운데 324회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에 삼십육년 나라없는 슬픔 안고
벗을 들고 항거하다 떠나가신 위인들을
공산당이 거슬린다 무덤까지 파헤치니
북녘땅에 우리 고적 어디 가서 찾아볼꼬²⁵⁾

필자가 기억하는 바로는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이라는 오프닝 시그널 뮤직과 함께 연출에 이상만, 성우로는 구민, 박민아 등의 이름이 귀에 쟁쟁하다. 이와 같이 KBS라디오의 5분 드라마 〈김삿갓 북한 방랑기〉는 1964년대 이후 10년이 넘도록 뚝뚝히 이어져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그 시대 우리 국민의 집단 의식은 반공방첩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몹시 심기가 불편한 프로그램이었다. 급기야 남북조절위원회의 북한측 대표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의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V. 맺는말

우리에게는 김삿갓이 김병연보다 귀에 익은 이름이다. 어려서부터 시적 재능을 나타냈으나 할아버지의 죄상으로 울분을 이기지 못해 가출하여 방랑하다가 객사했다. 그는 양반가정에서 출생했으나 양반의 추악상과 부조

25) 개인소장, 육필원고, 1965.

리한 사회상을 풍자, 조롱하며 일생을 보냈다. 그의 한시들은 당대의 신진 사상이나 백성들의 투쟁의식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기만 하면 문득 음식을 대접하고 머물러 묵게 하였다' 고 했듯이 그의 풍자시는 세인의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양반을 공격하는 그의 해학으로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무리 시골집에 들어가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것은 20세기 초의 개화시대에도 부단히 계속되었다. 바야흐로 식민지 시대의 집단 의식은 그 표적이 일본 제국주의로 향해졌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용수라는 하나의 변수가 추가되었다. 지금껏 구전되어 오던 김병연의 작품들을 이용수가 끈질긴 노력으로 수집하여 『김립시집』으로 묶었으며 해설을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용수는 북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의 공적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용수가 우리의 체제에서 사라졌으나 북쪽에서는 그를 김일성종합대학교수로 영입하였다. 1956년 평양국립출판사에서 『풍자시인 김삿갓』을 출판했는데 발행부수는 무려 2만부였다. 남한에서도 16명 이상의 편저자가 30회 이상이나 『김립시집』을 펴내었다. 북한에서는 김병연의 한시들이 인민의 적인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용수가 사라졌지만 김삿갓의 풍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19세기의 봉건사회, 20세기 초의 일제식민통치, 그리고 6.25전쟁을 거치며 세태가 연달아 바뀌었으나 그 배후에는 항상 김삿갓의 해학과 풍자가 줄곧 사용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김병연의 한시 〈진일수두객〉은 현대시와도 연계하여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 이 작품이 乙巳五賊에서 유래하여 70년대의 부패 권력층을 비유한 다섯 가지의 도적인 동빙고동 도둑촌의 오적, 즉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풍자한 김지하 시인의 저항시 〈五賊〉의 萌芽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서구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화해 속에 김삿갓도 이용수도 모두

파문히고 말았다. 그러나 뮤지컬 김삿갓으로 부활하기도 하며, 전국의 노래방 목록에 홍서범의 〈김삿갓(4643)〉과 명국환의 〈방랑시인 김삿갓(80036)〉이 디스코 곡으로 흘러나오기도 한다. 한때 영화로도 상영되었고 김삿갓 소주로도 우리 앞에 아롱거리던 김병연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중의 문화현상이다.

이응수가 역편한 『김립시집』은 일찍이 미국의 Richard Rutt와 Yu-Kung Kao, Tsu-Lin Mei와 Shuen-Fu Lin과 Stephen Owen, 그리고 Arthur Pollard 등에 의한 연구도 있었으며 일어판은 물론 독일어, 러시아어로도 번역된 시집이 출판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연의 연구나 출판들은 이응수의 초역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남북의 문화교류도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이며 개성공단의 제품이 쏟아지는 이 마당에 이응수에 대한 연구를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쪽에서는 월북작가로 낙인찍히고, 북쪽에서는 삭제된 이응수의 업적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여 매우 아쉽다. 우리 나라의 문학사에서 잠시 가려진 『김립시집』과 이응수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석우, 『해장집』.
- 박혜숙, 『김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양동식, 『金笠詩集』 원전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김병연시집 번역검토』, 『古詩歌研究』제1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 _____, 『이응수 『金笠詩集』原典檢討』, 『南道文化研究』제10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04.
- _____, 『全南地域과 金炳淵文學의 關係』, 『古詩歌研究』제1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 _____, 『金笠詩에 나타난 動植物考察』, 『古詩歌研究』제17집, 한국고시가문

- 학회, 2006.
- _____. 「새로 발굴한 金炳淵의 科體詩 검토」, 『古詩歌研究』 제18집, 한국고시
가문학회, 2006.
- 이건호, 『金炳淵詩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응수, 『김립시집』(증보판), 한성도서주식회사, 1941.
- _____. 『김삿갓풍자시전집』, 실천문학사, 2000.
-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 정응수, 『김삿갓시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6.
- 최석의, 『김립시선』, 평범사, 2003.
- KBS,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 한영국, 『한국사대계』 6권 〈조선후기〉, 삼진사, 1973
- 한우근,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 을유문화사, 1961.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Compiling *Kim Rip Shijip*

Ryu, Yeon-seok / Yang, Dong-sik

Although Kim, Byeong-yeon, well known to people as a nickname Kim, Sat-gat was born in the noble class, he made fun of the corrupt noble class and social absurdities, and satirized them in his works throughout his life. His poems didn't affect the contemporary schools of thought and the struggling of the people, but his satiric poetry were well-received by a great number of people.

The works of Kim, Byeong-yeon, which had been passed down orally were collected and edited as *Kim Rip Shijip* with comments by Lee, Eung-soo. But his achievements couldn't be credited properly due to his expatriation to North Korea. In North Korea, the works of Kim, Byeong-yeon were exploited to attack capitalism and the noble class, which were the enemy of the people. Although Lee, Eung-soo went away to North Korea, the satire on the society of Kim, Sat-gat is still hailed by many readers. The social conditions had been changed through the feudal times in the 19 century, the colonial period in the early 20 century, and the Korean War in 1950. Nevertheless, throughout those political and historical turmoils, Kim, Sat-gat's humor and satire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ublic.

Key words : Kim, Byeng-yeon, *Kim Rip Shijip*, Kim Sat-gat
Bukhan bangranggi